

KOSPI 1,923.42 (-67.05)

미·중국發 악재 ‘검은 월요일’

서브프라임·환율·유가 총체적 압박에 투자심리 급격 위축 “1860선까지 떨어진다” 불안감에 연말장세 조정 길어질 듯

주식시장이 뉴욕증시의 급락 등 잇따른 대외악재로 인해 3% 넘게 폭락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9일) 대비 67.05포인트(3.37%) 급락한 1,923.42로 마감했다.

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시장의 급락이 국내시장 약세의 1차 주요인”이라며 “특히 최근 해외 주요시장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지지선 1,920선, 2차 지지선은 1,860선대 될 듯=전문가들은 향후 급락세를 멈출 수 있는 기술적인 지지선과 관련해 1차 지지선으로 60일 이평선이 있는 1,920선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차 지지선이 무너지면 120일 이평선(12일 현재 1,864선)이 걸려져 있는 1,800선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할 땐 묻지도 않더니... 보험사들 고지의무위반 들어 지급 거절 일수

금감원, 서면고지 지시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잦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능일, 증시 개·폐장 1시간씩 순연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15일 주식시장의 개장,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은행간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정규시장은 오전 10시~오후 4시로 변경되며 시간외시장은 장개시 전 오전 8시30분~9시30분, 장종료 후 오후 4시10분~4시30분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62% “회사서 소외감 경험”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1천238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61.6%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20대 57.1%, 30대 65.5%, 40대 71.4%, 50대 74.3%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 임원 평균 나이 51세

잡코리아는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출생연도가 기재된 임원 2천365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이 만 51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50대(55.7%)와 40대(41.2%)가 주를 이뤘다. 60대는 2.3%, 30대는 0.7%였다.

“광주신세계타운으로 불러주세요”

광주신세계가 13일부터 ‘광주신세계타운’으로 거듭난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과 이마트, 패션스트리트가 결합된 복합쇼핑몰 개념을 넘어 인근 버스터미널의 연결 기능을 아우르는 광주의 쇼핑메카를 강조하기 위해 광주신세계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득점 기원 수능 상품 등장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신세계 이마트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에는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고득점을 기원하는 초콜릿과 옛 등 다양한 수능 상품이 등장했다.

도시 근로자 소득 격차 더 커졌다

상위 20% 하위의 5.41배
지난해 동기비 0.12P 올라
가계소비지출도 8% 증가



추석의 영향으로 3·4분기 소득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지출과 조세지출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3·4분기 소득증가율은 7.4%인 반면 소비지출증가율은 8.0%를 기록했고 조세지출증가율은 14.0%에 달했다.

환율하락에 수출증기 32% 적자

정부 긴급 지원 나서
수출 중소기업의 32%가 영업이익 적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가 커져자 정부가 긴급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12일 무역협회에서 김영주 장관이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동일정밀 등 30여개의 대·중소기업 수출기업 대표, 수출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긴급 환율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亞, 對美 수출의존 시대 끝났다

외환보유·외자유입 늘어
인프라 자체 투자 가능
아시아는 보유 외환과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 경제의 부침에 들쭉이는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다고 홍콩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11일 입을 모았다.

코트라 경력 3명 선발에 석·박사만 237명 지원

‘신의 직장’ 공기업 인기 실감
코트라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에 고학력 우수인재가 ‘구름처럼’ 몰려 들어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서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공기업의 인기 실감을 했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간 신입 및 경력사원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7명을 뽑는 신입사원에 2천861명(경쟁률 168.3 대 1), 3명을 선발하는 경력사원에 355명(118.3 대 1) 등 모두 3천216명이 접수했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with details like '경력회계직', '고졸/경력3년', and '11/14'.